여러분의 정성이 불교의 희망이 됩니다!
5000원 1계좌 동참불사
중앙승가대학교 후원회 031-980-7892~3

불교신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시다
ARS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한통당 5,000원)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9년 12월 26일 (2015년 / 단기 4348년 음력 11월16일) i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3165호 토

내년 1급 승가고시 응시자 '종단발전 제안서' 제출해야

2017년부터 3급 승가고시 상반기 시행

내년도 1급 승가고시 응시자들은 수행교화 이력서와 활동계획서 외에도 종단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2017년 3급 승가고시가 상반기에 시행된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스님)는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8차 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6년도 승가고시 일정을 확정했다.

1급 승가고시는 내년 4월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치러진다. 응시대상자는 2010년과 2011년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비구 대덕, 비구니 혜덕 법계를 수지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스님이다. 원서접수기간은 2016년 3월15일부터 4월9일까지다. 응시원서와 수행 및 교화활동 이력서와 증빙자료, 법계 수지 후 활동 계획서 외에 종단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는 논술형식으로 종단행정이나 교구본사, 승가교육, 복지, 포교 등 여러 분야 가운데 하나를 택해 발전방안을 작성하면 된다. 시험 당일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심층면접이 진행된다.

2급과 3급 승가고시는 10월8일과 7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각각 진행되며 시험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다. 4급 승가고시는 3월25일 중앙승가대서, 5급 승가고시는 3월10일과 9월5일에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2017년부터 매년 10월경 치러진 3급 승가고시가 상반기로 일정이 변경된다.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비구 견덕, 비구니 계덕 법계를 품서하면 각종 종회의원 및 교구본사 주지 선거 등에 선거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앞당긴 것이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지난 22일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에는 오후 내내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지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연탄을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까매진 얼굴 하얀 미소…겨울은 따뜻하다

동행-불교포럼, 연말 개미마을 찾아

연탄 배달 수저 선물하며 한해 회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동지를 맞아 자비나눔을 펼치며 우리 사회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을 보듬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서울 홍제3동 개미마을을 찾아 저소득 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연탄 나눔에는 사회부장 정문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동건 불교포럼 대표, 아름다운동행 자원봉사자 및 불교포럼 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아프리카 학교 건립기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해 온 불자 아이돌 그룹 '순정소년L'도 연탄 나눔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연탄 나눔은 아름다운동행과 불교포럼이 진행해 오던 후원의 밤을 대신해 나눔으로 연말을 회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연탄 나눔 봉사를 펼친 홍제동 개미마을은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 한 곳으로 마을 주민들이 새벽부터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개미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총무원장 스님의 개미마을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2010년 11월 총무원장 취임 1주년과 2013년 10월 제34대 총무원장 임기 시작 당시 개미마을 찾아 가정마다 연탄과 쌀을 직접 배달하며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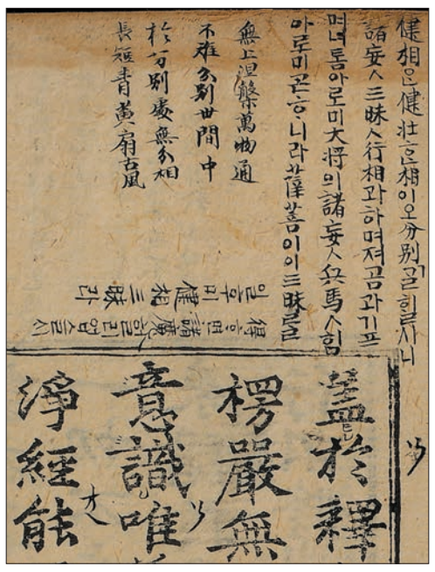
이날 총무원장 스님과 봉사자들은 개미마을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등 8가구에 연탄 200장씩 총 1600장을 전달했다. 또 총무원장 스님은 개미마을 80대 부부의 집을 찾아 "건강하게 잘 사시라"는 덕담과 함께 염주와 수저 세트를 선물했다. 동지를 맞아 팥죽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는 "동짓날은 좋은 날이다. 앞으로도 향기를 나누는 봉사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저소득가정 연탄 지원 릴레이 모금캠페인 '아이연탄맨'을 통해 서울 정릉3동 쪽방촌 40가구에 연탄 8000장을 전달했으며, 이날 개미마을 연탄 지원을 포함해 서울지역 80가구에 총 1만6000장의 연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15세기 능엄경서 最古 한글 '확인'

불교학술원 "훈민정음 초기 서체"



고양 원각사 소장 〈능엄경〉 권1, 2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 자료.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 손으로 쓴 가장 오래된 한글 글씨가 15세기 경전에서 확인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고양 원각사가 소장하고 있는 〈능엄경〉 권 1, 2에서 1461년 이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글씨와 신라와 고려시대 석독구결을 잇는 석독(釋讀)표기가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단의 문헌집성 작업과 한국기술교육대 문리각 연구팀의 구결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불교학술원에 따르면 이 책은 1401년 당시 태상왕이었던 태조의 명으로 간행한 왕실본이다. 책에는 1461년 교서관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하고 1462년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능엄경언해〉의 번역 사업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묵서와 교정용 종이가 빼곡히 달려있다. 국보 212호로 지정된 〈능엄경언해〉는 초기 국어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경문과 요해는 묵서로 쓴 구결(한문 해석을 위해 한문 옆에 우리말 요소를 써 넣은 것)을 차자(借字, 빌려 쓴 글자) 또는 한글로 달아 놓았고, 여백을 이용해 경문이나 요해에 없는 주석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써 넣었다. 잘못 쓴 부분에는 일일이 종이를 붙여 교정했다.

이번에 발견된 한글 글씨는 가느다란 붓을 이용해 훈민정음 초기 서체로 썼으며, 반치음(ㅿ)과 옛이응(ㆁ), 합용병서(ㅉ) 등이 남아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 사업단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본은 1464년에 쓴 〈상원사어첩·중창권선문〉인데, 원각사 소장 〈능엄경〉 묵서는 1461년의 〈능엄경언해〉 보다 먼저 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 자료"라고 평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램, 건강해져서 꼭 만나자" 택배에 실린 아이들의 소망

전주룸비니어린이집 8년째 후원

"램,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 건강해져서 나중에 꼭 만나자." 지난 21일 지구촌공생회 서울사무국엔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됐다. 상자 안에는 각양각색의 저금통 40여 개가 들어 있었다. 크레파스와 연필로 꾹꾹 눌러쓴 종이쪽지도 함께 였다. 벌써 8년째, 전주룸비니어린이집에서 해마다 지구촌공생회에 보내오는 상자다.

국제개발협력단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 서울사무국엔 매년 12월이면 저금통이 가득 든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된다. 상자 안에는 지구촌공생회와 지난 2008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전주룸비니어린이집 아동들이 1년 동안 모아온 동전이 빈 공간 없이 가득하다.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 응원의 말을 적은 스케치북도 빼놓지 않고 들어 있다. 후원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번 다른 응원의 말들이 적히는 만큼, 26만9900원, 48만5950원, 100만원 등 해마다 전달되는 금액도 다르다.

지구촌공생회에는 해마다 저금통이 가득 든 택배 상자가 배달된다. 벌써 8년째 지구촌공생회를 후원하고 있는 전주룸비니어린이집 아동들.

그동안 룸비니어린이집이 보내온 동전들은 지구촌공생회가 미얀마에 짓고 있는 학교 건립, 캄보디아 생명의우물 건립 등을 위해 쓰였다. 올해는 지구촌공생회가 후원하고 있는 라오스 아동 램(14)의 호르몬 치료를 위해 쓰인다. 램은 지구촌공생회가 결연을 맺고 있는 아동으로, 지난 5년 동안 건강상 문제로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피로감과 두통이 계속됐다. 정확한 건강검진이 필요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진학은커녕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램은 내년이면 학교에 갈 수 있다. 지구촌공생회가 룸비니어린이집으로부터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램에게 혈소판, 갑상선, 심전도 검사 등의 의료 혜택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도 할 예정이다. 지구촌공생회로부터 어린이집 친구들의 후원 소식을 전해들은 램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건강해져서 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도 열심히 해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고 전해왔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3166호는 2016년 1월1일(금) 발행

지구촌공생회 Good Hands

2015년 한해도 지구촌 이웃들에게 환한 등불이
되어주신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비광명의 빛은 널리
퍼져나가 어두운 지구촌 곳곳을 밝히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생명의 손
4개국 총 2,290기 식수시설 건립 및 사후관리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손
8개국 총 51개 교육시설건립

변화를 일궈내는 자립의 손
5곳의 자립농장 및 사업장 운영,
캄보디아 지뢰제거사업(20개마을, 15만여 평)

아픔을 보듬어주는 자비의 손
지구촌 곳곳 재해지역 긴급구호
4월25일 네팔 강진 발생 6차례 긴급구호

(사)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월주

■ 후원문의 02.3409.0303
■ 후원계좌 국민은행 337101-04-019295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농 협 100026-55-003657 (사)지구촌공생회
우리은행 1005-501-776078 (사)지구촌공생회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종교, 민족, 이념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2003년 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창립한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11개 빈곤국가 주민들을 위해 식수지원, 교육지원, 지역개발사업 등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정기 후원, 홀몸어르신 식사대접, 어르신 생신잔치 등 국내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분들
이 사 장: 송월주(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금산사 · 영화사 조실) 이 사: 자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영(금산사 회주), 성타(불국사 회주), 설송(희방사 주지), 도원(학림사 회주), 평상(백련사 주지), 지홍(불광사 회주), 선묵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원행(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지현(조계사 주지), 정념(월정사 주지), 성우(금산사 주지) 감 사: 월우(대흥사 주지), 정연찬 사무총장: 원광(심원암 주지) 사무처장: 덕림(관음사 주지) 미국서부지부(지부장 현철스님), 전북지부(지부장 원광스님), 대전지부(지부장 광진스님), 대구지부(지부장 선지스님), 창원지회(지회장 정인스님), 서울서부지회(지회장 송재봉), 익산지회(지회장 박순자), 군산지회(지회장 박순호), 강원영동지회(지회장 권동용), 대전1지회(지회장 도일스님), 충북지회(지회장 현진스님) 그리고 17,000여명의 후원회원과 함께합니다. www.goodhands.or.kr